

서 평

오래된 모성의 급진적 재구성: 엄마들의 당사자 정치

권희정, 『미혼모의 탄생: 추방된 어머니의 역사』, (안토니아스, 2019)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 엄마가 이긴다: 모성 신화를 거부한 엄마들』,
(생각하는힘, 2018)

이진옥*

1. 페미니즘과 모성

페미니즘은 여성을 생물학의 운명으로부터 구원하고자 했고, 모성은 페미니스트 기획의 난제였다. 여성의 모성 경험은 여성주의 지식의 인식론적 근간이 되었고 모성은 새로운 정치적 미래를 상상하는 자원이었다. 한편, 모성은 여성 억압과 예측의 근원이었고 가부장제와 공모해야 하는 강제적 이성애의 산물이었다. 1976년 아드리엔느 리치(Rich)는 『더 이상 어머니는 없다: 모성 신화에 대한 반성』(*Of Woman Born - Motherhood as Experience and Institution*, 1976)의 서문에서 모성이라는 “주제가 오래 전에 나를 선택했다”고 밝힌다(리치, 2002: 12). 모성을 여성의 천부적 특질로 바라보는 “생물학적 관점”은 모성을 신화화함으로써 여성이 모성 수

* (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연구위원

© 2020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행에서 경험하는 고립감과 고통을 모성애의 이름으로 침묵시키며, 아이들에 대한 분노와 애정, 넘치는 에너지와 한없는 무력감 사이를 오가는 자기 분열적인 모성 경험을 비가시화한다. 모성의 이름으로 허우적대는 한 명의 엄마로서 리치는 모성을 경험적 모성과 제도적 모성으로 구분함으로써 자신의 모성 경험을 명징하게 분석한다. “그 제도 속에 가둠으로써 여자들을 그 육체로부터 소외”시키고, “여성의 잠재력을 구체화하여 그 능력을 저하”시킨 제도로서의 모성이 문제의 근원이었다(10). 즉, 제도로서의 모성은 여성을 경험적 모성으로부터 소외시키고, 아이를 많이 낳아도, 적게 낳아도, 낳지 않아도, 그 모성의 테두리 안에 여성을 포획한다. 더불어 이 제도적 모성은 법적 남편의 아이일 경우에만 인정된다.

리치는 “나는 모성이 여성주의 이론에 있어 중요하면서도 비교적 미개척의 영역이기 때문에” 모성에 관한 책을 쓰게 되었다고 말한다(12). 출간된 이후 수십 년이 지났으나 이 책은 여전히 모성에 대한 독보적인 저작으로 남아 있다. 리치의 제도적 모성에 대한 통찰력은 모성의 사회구성적 특질을 탐구하는 나침반이 되었다. 사회적·정치적 제도로서 핵심 근간인 모성은 남성 지배의 근대 생산경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주도되고 그 구체적 실천 양식은 엄마됨의 위치성에 따라 다양하게 변주된다. 그리고 그 모성은 강화되기도, 탈각되기도 하며, 여성에게 알량한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는 기제가 되기도, 삶을 지배하는 굴레가 되기도 한 양가적인 것이었다. 페미니즘에서 모성은 여성과 마땅히 분리되어야 했고, 모성을 여성의 등가물로 취급했던 “생물학”적인 접근은 설 자리를 잃었다. 출산을 한 엄마를 유일한 모성 실천의 주체로 상정하는 제도적 모성은 여전히 그 위세를 강고히 떨치고 있으나, 언어의 세계에서 모성은 이제 “구성적”이고 “사회적”인 실천이자, “출산”을 한 사람과, (더 나아가 이제는 “정자와 난자”를 제공한 사람과) 실질적인 “양육”을 하는 사람이 굳이 여성과 엄마의 이름으로 매개될 당위성은 사라졌다. 그 당위성을 거부하는 방식은 결혼이라는

제도에 들어가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엄마됨을 거부하는 선택지로 일반화되었다. 그렇게 여성과 모성의 결별을 통해 ‘모성’이라는 페미니즘의 난제는 해결된 듯하다. 물론 그러한 결별이 여성에게 모성 규범의 무게를 완전히 덜어주지는 않는다. 최지은(2020)은 저서 『엄마는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 없이 살기로 한 닥크 여성 18명의 고민과 관계, 그리고 행복』에서, “엄마가 되지 않겠다”는 선택이 엄마되기를 전 방위적으로 압박하는 사회에서 엄마되기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노력”을 요구하는 일임을 드러낸다.

2. 엄마들의 정치세력화: 사회적 모성으로서 모성

페미니즘 담론에서 여성과 모성에 대한 결별은 여성의 엄마됨에 대한 언어를 공백으로 남겨둔 반면, 모성에 대한 지배적 담론은 엄격한 훈육적 자녀 교육을 수행하는 타이거 맘(Tiger Mom), 아이들의 삶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잔디 깎기 맘(Lawn mower Mom), 과잉 보호형의 헬리콥터 맘(Helicopter Mom) 등의 “관리자형 모성”에 대한 비판과 질책으로 가득 메워졌다.¹⁾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나타내는 한국에서 역설적으로 등장한 “맘충”과 “노키즈존” 등의 현상은 모성 신화로 유지되어 왔던 모성마저 삼켜 버릴 만큼 여성혐오의 자장이 확장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며, 개별적인 여성의 모성 경험은 사회적으로 부정당하고 위축되었다. 그리고 2016년 10월 출간된 『82년생 김지영』은 엄마됨의 세계에 진입한 새로운 여성 세대의 언어 상실을 대변하였고, 이 책은 ‘도구적 모성’ 위에 구축된 한국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이끌었다.²⁾

1) 한국의 관리자형 모성도 마찬가지로 자녀교육 경쟁에 매몰된 중산층 모성에 대한 비판적 연구로 분석된 바 있다(박혜경, 2009; 조은, 2010).

국회의원 최초 임기 중 출산을 한 장하나 전 국회의원은 2017년 3월 25일 한겨레 토요판에 〈장하나의 엄마 정치〉라는 제목으로 연재를 시작한다. “왜 나는 나이 마흔이 되도록 육아가 이토록 힘든 일인지 까마득하게 몰랐을까?”라는 당혹스러운 의구심과 출산과 육아의 소비문화로 메워지는 모성 경험, “엄마는 가장 멋진 일인데도 가장 괘시받는 직업”이 된 이 기이한 현상과 뛰놀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빼앗긴 아이들을 보면서, “‘독박육아’는 나쁜 정부, 무능한 정치의 산물”이라고 실어증에 걸린 “82년생 김지영”을 소환한다. 그리고 엄마들이 만날 것을, 엄마들이 정치적 주체가 될 것을, 제안한다.

문제는 정치의 실패가 정치인들만의 책임은 아니란 점입니다. 우리 엄마들 자신은 평등육아를 위해 얼마나 목소리를 냈는지요? ... 정치 권력자들에게 엄마들의 정치적 요구를 구체적이고 단호하게 전달한 적이 있나요? ... 정치에 여성(엄마)들이 나서야만 독박육아를 끝장내고 평등하고 행복한 가족공동체를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울한 여성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습니다. ... 저와 마음이 통하신다면, 이제 우리 만납시다(『한겨레』, 2017.03.25).

한 달 뒤 30명 남짓의 엄마들이 모였다. 처음 모인 그 자리에서, 그들은 “다들 외롭고 힘들었는데 ... 엄마로서의 삶이 고통스러웠지만 그동안 그 이야기를 할 공적인 통로가 없었다”는 점을 토로하며, “이제야 이렇게 마음 놓고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마음껏 웃고 울 수도 있는 자리를 찾”았다고 안도했다(정치하는엄마들, 2018: 21-22). 그 모임에 참여한 다수는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비자발적인 퇴사를 선택한 이들이었다. 물론 남초

2) 황정미(2005)는 국가주도의 출산 정책을 모성을 동원하고 조직하는 가운데 모성을 도구화하는 정책의 예시로써 분석하며, 이를 ‘도구적 모성’으로서 개념화한다. 도구적 모성은 출산정책과 더불어 여성을 어머니로 호명하고 무급 노동으로 동원한 경제개발정책과 사회정책 전반에서 발견된다(문승숙, 2007; 이진옥, 2012).

조직의 성차별적인 직장 문화가 직접적인 요인이었으나, 그 문화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한국 경제의 구조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직시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든 적정한 시간 동안 일하고 충분히 쉬어야 한다. 노동시간이 길면 사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개인의 삶은 균형이 깨진다. 아이 키우는 부모는 양육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얻을 수 없다. 핵가족으로 분열된 현대의 가정에서는 부모가 일하느라 아이들까지 모두 뿔뿔이 흩어져 하루를 보낸다. 이는 곧 불행의 시작이며 ‘헬조선’의 출발이다(114).

엄마가 된 이들에게 ‘헬조선’은 장시간 노동과 성별화된 소득불평등, 그리고 돌봄과 생활의 극심한 불균형을 낳는 총체적인 삶의 위기이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육아에는 [노동, 보육, 교육, 주거 등] 모든 문제가 겹쳐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는 엄마들에게 “답은 정치”였다(23-25). 그리고 “직접 정치를 하고자 뜻”을 모으고, 첫 모임 이후 두 달 만에 2017년 6월 11일 창립총회를 통해 “정치하는엄마들”이라는 비영리단체를 설립한다.

정치하는엄마들 창립 멤버 중 10명의 필진으로 쓰인 『정치하는 엄마가 이긴다: 모성 신화를 거부한 엄마들』에서, 정치하는엄마들에게 모성의 재개념화가 긴 논의를 필요로 했던 가장 핵심적인 작업이었음을 알 수 있다. 모성을 결혼제도에서 출산한 여성 개개인의 책임으로 두는 한, 모성은 모성수행을 하는 여성을 소외시킬 수밖에 없으며, 모성의 숭고한 가치, “감수성, 공감력, 포용력을 담는 ‘엄마 마음’”은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들의 진단이다. 모성을 “사회와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통칭하는 사회적 모성”으로 정의하고, 단체의 정관에 “생물학적 성별이나 연령을 떠나 모든 성인과 국가 및 사회 시스템까지도 집단 모성의 주체로 지목”함으로써, 한 사람의 생애를 관통하는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한다(53).

사람은 삶의 어느 기간 혹은 모든 기간 동안 자신의 생명 유지를 위해 반드시 타인에게 의존하게 된다. ... 돌봄과 살림은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근본적이고 가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이를 사사로운 일로 치부하며 사회적·국가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 '모성'과 '모성에'라는 이름 아래 많은 여성들의 희생과 헌신을 강요받았고, 정치·경제적 주체로서 자립할 기회를 박탈당했으며, '이즘마'와 '맘충'이라 불리는 혐오와 비하의 대상이 되었다. ... 이제 모성은 생식적 어머니와 분리하여 돌봄과 살림을 수행하는 모든 주체의 역할을 가리키는 개념이 되어야 하고, 우리 사회는 집단모성·사회적 모성을 추구해야 한다. 나아가 혈연을 넘어서 돌봄과 살림의 관계를 기준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해야 하며, 가족 구성원 간의 성평등한 관계를 법·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 이에 우리는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이러한 목표들을 실현하고자 모인 구성원들의 뜻을 모아 '정치하는엄마들'을 창립한다(80).

누군가의 돌봄 노동 없이 사람은 살 수 없다. 그러나 돌봄은 당연히 엄마만의 역할로 치부되었고, 전적으로 여성의 "희생과 헌신"으로 매워졌으며, "'이즘마'와 '맘충'으로 혐오와 비하의 대상"으로 가시화된다. 돌봄은 '보이지 않는' '그림자 노동'으로 취급당한다. 돌봄의 가치는 돌봄이 부재할 때에야 드러난다. '맘충'과 '노키즈존'의 사회적 현상에서 정치하는엄마들에게 페미니즘은 자신의 경험을 언어화하는 그릇이었고, 성평등은 정치하는엄마들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였다. 그러나 모성은 줄곧 페미니즘과 불화했다. 모성은 곧잘 여성억압의 근원으로만 설명되어 왔다. 일례로 파이어스톤(Firestone)은 여성해방은 "야만적"인 임신과 "고통"뿐인 출산으로부터 해방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파이어스톤, 2016). 교육과 고용의 '동등한 기회'를 전제로 하는 여성과 남성의 평등 기획에서 모성과 돌봄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운 여성 개인이 상정되곤 한다. 그 결과 청년 페미니스트들에게 '헬조선'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4B(비연애, 비섹스,

비혼, 비출산) 운동이 제시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모성은 여성의 권리를 가로막고, 시간 빈곤에 시달리는 엄마들은 여성운동에 자유롭게 참여하기 힘들다. 엄마됨의 어려움은 곧잘 사적인 영역의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어 엄마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손쉬운 소비만이 사회적 관계를 맺는 매개이자 행위가 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엄마 정치’를 통해 페미니즘과 모성을 화해시킨다. 엄마와 정치의 조합이 새로운 것은 아니나, 도구화되지 않고 오롯이 “엄마로서의 정체성을 전면에 걸고 엄마라는 이름에 감춰진 수많은 모순과 불합리에 항거하는, 당사자로서의 ‘엄마 정치’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껏 없었다”(정치하는엄마들, 2018: 56). 모성의 공공성 회복을 촉구하며 개별 엄마 여성들은 독립적인 정치 주체로서 재탄생한다. 즉, 시민성의 실천을 통해 정치하는엄마들은 모성과 여성의 합치를 이루고, 페미니스트 정치를 확장한다.

3. 모성을 박탈당한 ‘미혼모’의 탄생

제도적 모성은 근본적으로 모성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모성을 기만한다. “제도로서의 모성이 작동하는 사회에서 사생아 출산, 낙태, 여성 간의 동성애와 같이 제도를 위협하는 행동은 일탈 행위 혹은 범죄 행위”로 간주된다(리치, 2002: 47).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소위 ‘정상가족’이라는 테두리에서 모성의 종속은 가부장제를 떠받치는 기초가 되고, 모성의 수행을 대가로 여성은 가족과 더불어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고, 부모는 자녀를 소유물로 취급할 수 있는 권력을 보장받는다. 김희경(2017)은 부모에 의한 자녀 살해를 “일가족 동반자살”이라는 언어로 포장하고 있으며, 저출산을 걱정하는 나라에서 갓 태어난 아기들이 버려지거나 해외로 입양되는 현실

을 “이상한 정상가족”이라고 꼬집는다. 전홍기혜 외(2019)는 한국의 국제 입양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국가에 의해 주도된 “입양 산업”의 역사를 폭로하며, 만들어진 ‘고아’, 즉 부모로부터 강제 분리된 아이들의 국제 입양을 비롯해 입양의 성공 신화에 감춰진 국제 입양인들의 고통을 낱알이 보고한다.

국제입양의 추세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은 국제입양 시장에서 막강한 송출국의 지위를 지니고, 2017년 기준, 국제입양아의 99.7%(398명 중 397명)가 미혼모의 자녀라는 점은, “생물학적” 모성이 추앙하는 여성의 모성권이 제도적으로 박탈당하는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아이를 포기한 어머니들은 아이의 죽음보다도 더 큰 “슬픔 증후군”을 앓지만(전홍기혜 외, 2019: 55), 미혼모의 슬픔을 접할 기회조차 없었다. 미혼부모의 통계는 2016년 처음 공식적으로 집계되어, 그 전까지 미혼부모는 서류상으로도 그 존재가 드러나지 않을 만큼, “미혼모는 그동안 사회 그 어떤 집단보다 관심 밖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시킨다(KBS, 2018.4.20).³⁾

2019년 12월에 출간된 『미혼모의 탄생』은 이러한 최근 논의의 맥락을 섬세하게 짚으며, 그간 보이지 않았던 혹은 감추어졌던 ‘미혼모’를 사회에 조심스럽게 드러낸다. 이 책은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난 50여 년간의 ‘미혼모’의 역사를 추적하여 세상에 나온 시대적 저작이자 역사적 보고서이다. 저자 권희정은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며 미혼모들과 만나면서, ‘미혼모’ 문제가 개별 여성이 아닌 “당시의 법과 제도, 사회복지 체계가 ‘문제’”라는 인식에 미치게 되었다고 고백한다(권희정, 2019: 20). 더 나아가, 해외 미혼모의 경험들을 접하면서, ‘미혼모’ 탄생의 한국적 특수성과 보편성을 질문하며, ‘미혼모’의 출산과 입양을 “특별한 개인들이 겪은 사적 경험이 아닌 역사적 사건”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3) ‘201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미혼모가 2만4000명, 미혼부가 1만1000명으로 집계되었다.

확신을 갖게 되었고, ‘미혼모’에 대한 통합적 연구와 더불어 ‘미혼모’ 당사자의 목소리가 들릴 기회를 마련하고자 노력한다(24-25).

“‘미혼모’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 또는 입양 선택을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접근하고 ‘미혼모’의 행위성에 주목한다. 그들의 양육과 입양 선택에 영향을 미친 변수를 “‘가정’이 규정하는 방식 및 ‘입양’이 실천되는 [제도적·담론적] 맥락” 속에서 ‘미혼모’의 탄생 과정을 추적한다. 권희정(2019)은 낙인의 언어로 사용된 ‘미혼모’를 고수하는 이유를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수많은 여성이 ‘미혼모’라는 집단으로 분류되며 그들의 자녀를 결혼한 가정으로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던 미혼 모성 억압 경험에 대한 역사적 탐구에 본 저서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이는 “낙인적 호칭”이 아니라 “분석적 용어”임을 분명히 한다. 더불어 “결혼 제도 밖의 임신과 출산을 통제하고 법률혼에 기초한 근대의 ‘가족’을 만들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 의해 구성된 용어임을 강조”하기 위해 ‘작은따옴표’로 묶어 ‘미혼모’로 쓴다.

김희정(2017)이나 전홍기혜 외(2019) 등의 저작이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입양’을 서술했다면, 권희정(2019)은 입양을 선택했던 미혼모들이 처한 당대의 담론과 실천을 기록한다. ‘미혼모’라는 용어 자체가 ‘입양’ 사업이 본격화되는 1970년 전후로 처음 등장했다는 사실 또한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권희정은 국내 입양 기관인 한국기독교양자회가 미혼모 상담 사업을 진행하면서 ‘미혼모’라는 문제적 범주가 등장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미혼모’의 초국적 탄생 과정을 조명한다. 이 책은 한국과 미국의 ‘가족’ 담론이 어떻게 쌍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며 ‘가족’, ‘미혼모’와 ‘입양’ 등의 사건들을 구성했는지 살핀다는 점에서 아이 송출국인 한국의 역사적·제도적 맥락에 집중했던 그 이전의 책들과 차별점을 만든다. 권희정(2019)은 “문화적 의미가 만들어지고 저항하는 주체에 의해 수정되는 과정을 거치는 역사적 공간으로서 미혼 모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도 및 담론의 변화

와 실천의 측면 모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서술하며, “근대의 가족과 입양 제도 및 이를 둘러싼 담론들 그리고 그것을 담지하거나 저항하는 미혼모 당사자 경험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복잡한 층위에서 시도하고 그 시도는 성공적이다.

권희정은 국제입양의 종주국인 미국에서 이상적 ‘가정’과 ‘모성’이 입양을 적극 수용하게 된 담론적 계보에 대한 선행연구를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1900년대 미국에서 중산층 핵가족에 대한 이상이 만들어지고 “모든 ‘정상적인 여성’들은 엄마가 되기를 원하며 모성에 대한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모성 담론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Berebitsky, 2000: 3; 권희정, 2019: 40 재인용). 가족전문가와 사회복지사 등의 근대적 직업군이 대거 출현하면서 아동의 발달은 유전보다 환경적 요소가 더욱 중요하고 좋은 부모 특히 좋은 엄마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전문가의 지식과 더불어 아이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심리적 보상은 혈연관계가 없는 아동의 입양을 긍정적 가치로 전환한다. 즉 입양이 “근대 복지에 관한 지식과 중산층 가족규범 특히 모성과 양육에 대한 언설이 긴밀히 작동해 혈연 밖 아동뿐 아니라 다인종 입양으로 옮겨간 역사적 공간”이었다는 비레비츠키의 연구는 해외 입양이 급격히 증가했는가의 의문을 말끔히 해소한다. 이러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이 책은 ‘구원으로서의 고아 입양’이 어떻게 미국의 이상적 가족과 이상적 모성의 재구성을 바탕으로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는 부계 혈연주의에 기초한 이상적 가족과 모성이 형성되는 한국의 근대화 과정과 맞물려 입양이 장려되고 ‘미혼모’가 탄생한 초국적이고 복합적인 과정을 탄탄하게 설명한다.

전후 고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해외 입양은 1970년대 이후 근대 자본주의 중산층 가정에 대한 욕망이 점차 일반화되면서 입양의 대상 범위는 미혼모 자녀 전체로 확대되었다. 그 결과 “입양은 이후 오랫동안 그 어떤 이념적 도전으로부터도 안전하고 자유로운 공간에서 율리

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입양되는 아동과 아동의 원가족은 탈정치화, 탈이념화되며 윤리적 진공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 관점은 “빈곤과 가난으로부터 요보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되었다”는 입양에 대한 진부한 설명과 ‘경제 발전을 이루며 더 활성화되어 가는 입양’이라는 모순된 사실 사이에 있는 커다란 간극을 설명하는 연결고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입양산업을 주도한 국가의 제도와 더불어 입양을 보내는 행위자 사이의 연결고리를 제시한다(111).

‘미혼모’의 자녀는 ‘요보호 아동’으로 구분되어 재배치되고, 미혼모는 “양육할 수 없는 모성”이라는 담론으로 정의된다. ‘미혼모’는 ‘불우 여성’이자 ‘병리적 모성’으로 범주화되며 모성의 경계 밖으로 추방된다. 자녀의 입양을 통한 ‘구제’와 ‘구원’, 사회의 ‘정상성’ 회복이라는 담론으로 국가와 사회는 ‘미혼모’에 대해 더욱 활발하게 개입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고, 그 결과 1980년대 미혼모 자녀의 국내외 입양은 1970년대 26,702건에서 1980년대 66,849건으로 거의 150%에 달하는 놀라운 증가폭을 나타냈다(163). 즉 기혼 여성에게는 자신의 삶보다 ‘양육’을 우선시하라고, 결혼 제도 밖에서 출산한 여성에게는 아동의 ‘양육’은 포기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회적 담론이 모성을 구성한다. 이에 권희정(2019)은 ‘미혼모’를 기존 제도와 담론의 지지자(carrier)로서 또한 그것을 재해석하고 비껴 나가며 저항하는 주체(agent)로서 접근한다(51). “양육할 수 없는” “위험한” 모성으로 범주화되어 온 미혼모는 오랫동안 자신의 모성을 억압하고 부정하며 침묵하도록 기대되었던 존재이지만 권희정은 그럼에도 양육을 선택하고 자신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당사자 조직을 만들고 어머니로서 또 하나의 가족 형태로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미혼모들의 목소리에 주목한다.

권희정(2019)은 “저출산 문제나 낙태 반대 운동은 그간 우리 사회에서 온전히 탈모성화되어 온 미혼 모성의 재생산권을 공론화시키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2000년대 이후 “모성의 자격이 없다는 ‘탈모성화’의 언설과 자연적 어머니로 그들의 모성을 본질화하는 ‘모성화’의 담론 사이에서 자신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과 관련된 일련의 선택들을 고민해야 하는 경계에 위치”한 ‘미혼모’의 새로운 맥락을 분석한다. 김희경(2017)이 지적하듯 “미혼모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조하는 이유가 오로지 ‘핏줄’ 때문이라면 그러한 인식은 거꾸로 핏줄로 연결된 ‘정상가족’ 이외의 모든 가족에 대한 편견을 되레 강화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친엄마의 양육이 더 좋고 입양이 더 좋고를 떠나서 여성이 출산과 양육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미혼모’에 대한 정치적 해법일 것이다(김희경, 2017: 128). 그 점에서 『미혼모의 탄생』은 “‘보호’를 필요로 하면서도 당당히 독립된 모성으로 스스로 설 ‘권리’를 희망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욕구 사이에 놓인 당시 미혼모들이 처한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57) 미혼모 “당사자”들의 입양과 양육 그 모든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담고자 한 저자의 세심한 노력을 책 전반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제도적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들은 소위 ‘정상 가족’의 틀 밖에서 강도 높은 갈등과 긴장을 감내하고 새로운 가족의 모형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저자는 그들에 대한 응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는다.

4. 모성의 정치적 재구성

저자 권희정은 “미혼모의 경험과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부정된 모성성을 복원하기 위한 도서 출판을 목적”으로 1인 출판사마저 차린다. 영화 〈안토니아스 라인〉에서 영감을 얻어 미혼모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희망을 담아 출판사의 이름을 안토니아스로 지었다고 하며 이 책의

판매 수익은 도움이 필요한 미/비혼의 어머니들을 위해 전액 기부할 예정이라고 한다. 분명 이 책은 ‘미혼모’ 연구의 역사적 분기점이 됨과 동시에 ‘미혼모’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고 제도적 변화를 위한 담론적 기반을 닦을 것이며 그리고 ‘모성’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촉발점을 낳을 것이다.

저자가 정리하여 제시하듯이 이제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들은 적극적으로 다양한 당사자 모임을 꾸리고 세상과 소통하고 제도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모성 경험이 정치하는엄마들이 모여서 나누었던 고통과 사회적 자아의 상실감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여성이 임신을 했을 때, 낙태 또는 출산을 결정할 때, 출산 후 입양 또는 양육을 선택하든 그 어떤 선택지에서 모성(mothering)을 실현하기 어려운 조건이 그 선택지를 제한하는 이유가 된다면 커테이(Kittay)는 그것을 부정의(injustice)라고 일컫는다(커테이, 2016). 김희강(2020)은 모성을 비롯한 돌봄이 가능한 조건을 실현하는 것이 “정의”의 일부를 구성하도록 민주주의 모델이 재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모성을 추구하는 정치하는엄마들은 창립 이후 장시간 노동을 제한하기 위한 “칼퇴근법”의 도입을 추구하고 어린이집 급식비의 차별 및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밝혀내며 보육과 교육의 형평성과 공공성을 추구하고 소위 ‘햄버거병’과 자동차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부모들과 연대하고 노모어핑크 및 스쿨미투 지원 활동 등을 통해 성평등한 교육 문화를 만들고자 애써왔다. 이는 리치가 제안한 모성의 정치적 기획과 맞닿는다.

놀라운 것은 바로 모성 제도의 파괴성 안에서조차도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귀중한 것을 모두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이 때문에 미래에는 여성과 아이들의 생활이 여성들의 손에 의해서 바로 잡히게

될 거라고 커다란 희망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어머니에게는 부드러움, 열정, 본능에 대한 신뢰, 있는 줄도 몰랐던 용기를 불러내는 것, 타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 인생의 대가와 번덕스러움에 대한 명료한 깨달음이 있다. 자신의 아이를 위한 어머니의 투쟁 - 질병, 가난, 전쟁, 인간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모든 착취와 냉혹함과의 투쟁 - 은 인간 공동의 것이 되어야 하고 이 투쟁은 생존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치러져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모성이라는 제도가 사라져야만 한다(리치, 2002: 352).

아이를 키우면서 길러지는 부드러움과 열정, 신뢰, 용기, 배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 등의 엄마됨의 덕성들은 인간의 생명을 지키고 생존을 위한 투쟁의 기초가 되며 이는 엄마들만의 몫이 아니라 인간 공동의, 사회의, 국가의 몫이 되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제도로서의 모성이 소멸되어야 한다.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로 지탱되는 제도적 모성은 가부장제를 유지하고 성별 위계와 성불평등을 고착화했으며 그 결과 한국은 ‘아이 없는 사회’로 진입 중이다. 모성이 온전하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족 형태가 제도적으로 승인되고 돌봄/노동의 사회적 재조직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미혼모의 탄생』과 『정치하는 엄마가 이긴다』 이 두 책은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엄마들의 당사자 정치가 오래된 제도적 모성에 균열을 내고 모성을 급진적으로 재구성하는 정치적 기획의 산물이다.

참고문헌

- 권희정(2019), 『미혼모의 탄생: 추방된 어머니의 역사』, 인천: 안토니아스.
김희강(2020), “돌봄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넘어”, 『한국여성학』, 제36권 1호, 59-93쪽.

- 김희경(2017), 『이상한 정상가족』, 서울: 동아시아.
- 리치, 아드리엔느(2002), 『더 이상 어머니는 없다: 모성 신화에 대한 반성』, 김인성 옮김, 서울: 평민사, Rich, A.(1976), *Of Woman Born - Motherhood as Experience and Institution*, New York: Norton.
- 문승숙(2007), 『군사주의에 갇힌 근대』, 이현정 옮김, 서울: 또하나의문화, Moon, Seungsook(2005), *Militarized Modernity and Gendered Citizenship in South Korea*,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 박혜경(2009), “한국 중산층의 자녀교육 경쟁과 ‘전업 어머니’ 정체성”, 『한국여성학』, 제25권 3호, 5-33쪽.
- 이진옥(2012), “사회적 재생산을 통해 본 발전국가의 재해석”, 『여성학연구』, 제22권 1호, 73~101쪽.
- 전홍기혜·이경은·제인 정 트렌카(2019), 『아이들 파는 나라: 한국의 국제입양 실태에 관한 보고서』, 파주: 오월의 봄.
- 정치하는엄마들(2018), 『정치하는 엄마가 이긴다: 모성 신화를 거부한 엄마들』, 파주: 생각하는힘.
- 조남주(2016), 『82년생 김지영』, 서울: 민음사.
- 조은(2010), “젠더 불평등 또는 젠더 패러독스”, 『한국여성학』, 제26권 1호, 69-95쪽.
- 최지은(2020), 『엄마는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 없이 살기로 한 딥크 여성 18명의 고민과 관계, 그리고 행복』, 서울: 한겨레출판.
- 커테이, 에바 페더(2016), 『돌봄: 사랑의 노동 - 여성, 평등, 그리고 의존에 관한 에세이』, 김희강·나상원 옮김, 서울: 박영사, Kittay, E. F.(2013), *Love's Labour: Essays on Women, Equality, and Dependency*, New York: Routledge.
- 파이어스톤, 슬라미스(2016), 『성의 변증법』, 김민예숙·유숙열 옮김, Firestone, S.(1970), *The Dialectic of Sex: The Case for Feminist Revolution*, New York: William Morrow and Company.
- 황정미(2005), “‘저출산’과 한국 모성의 젠더정치”, 『한국여성학』, 제21권 3

호, 99-132쪽.

Berebitsky, J.(2000) *Like Our Very Own: Adoption and the Changing Culture of Motherhood, 1851 - 1950*, 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언론자료〉

『한겨레』, 2017.3.25, “[토요판] 장하나의 엄마 정치 ① 연재를 시작하며”.

『KBS』, 2018.4.20, “[나는 대한민국 미혼모입니다] ④ “미혼모도 존중해주세요”.